
일제강점기 조사 낙랑고분 출토 토기의 재검토*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

이 나 경**

목 차

I. 머리말

II. 낙랑고분 출토 토기의 기종별 분류

1. 낙랑토기 분류 재검토
2. 주요 기종별 분류

III. 낙랑고분 출토 토기의 제작기법 검토

1. 화분형토기
2. 원저단경호
3. 평저호
4. 석영혼입계 용

IV. 일제강점기 조사 낙랑고분 출토 토기 재검토의 의의

— 결론을 대신하여

* 이 글은 2022년 ‘국립박물관 소장 일제강점기 자료의 공개와 활용’ 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국립춘천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문초록

본고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낙랑고분 출토 토기의 기종 분류 및 기종별 편년을 재검토하고, 낙랑토성 출토품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온 제작기술적 속성이 고분 출토품을 포함한 낙랑토기 전체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제작기법의 차이를 토대로 기존 분류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기종을 확인하였으며, 낙랑토성 출토품을 중심으로 한 소위 ‘낙랑토기 제작기법’이 낙랑토기 전체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종별 세부 분류와 편년 결과를 제작기법과 비교 검토한 결과, 낙랑고분 출토 토기에서 확인되는 제작기법의 등장, 지속 시기를 추정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성립된 낙랑군을 비롯한 한 군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아직까지도 낙랑군 연구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고에서 시도한 유물에 집중한 연구는 기존의 이러한 편향된 시각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낙랑군의 물질문화가 곧 漢의 물질문화로 통용되었던 일제강점기와 달리 중국 내 여러 지역에서의 고고학적 조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재, 漢代의 여러 지역 문화를 비롯하여 중국을 비롯한 주변 지역을 잇는 물류체계의 존재가 밝혀지고 있다. 토기를 비롯한 낙랑 고분 출토품 개개에 대한 검토, 그리고 중국 내 출토품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낙랑군 연구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Ⅰ 주제어 Ⅰ

낙랑고분, 낙랑토성, 토기, 낙랑군, 국립중앙박물관

I. 머리말

주지하듯 낙랑 유적의 발견과 조사는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고적조사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이다. 대동강 남안에 접해 있는 낙랑토성의 남쪽으로 동서 8km, 남북 4km 범위에 걸쳐 있는 구릉지대에는 많은 수의 낙랑 무덤이 산재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20 년대에 파악된 수만 1,386기에 이르며, 광복 이후 북한 학자들에 의해 조사된 것을 합하면 3,000여 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낙랑 유적에 대한 고고학 조사는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데, 최초로 조사된 낙랑 무덤은 세키노 다다시(關野 貞)가 1909(明治 42)년에 조사한 석암동고분石巖洞古墳이다. 같은 해에 이루어진 대동강면 고분(갑甲, 을乙, 병丙分)의 조사를 시작으로 일제강점기가 끝나기 직전인 1944(昭和 19)년까지 36년 간, 거의 매년 조사가 이루어져 일제강점기에 공식적으로 조사된 낙랑 무덤 수는 93기에 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고서는 14권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유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출토유물 목록만을 담은 발굴조사개요發掘調査概要가 대부분으로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조사 성과를 연구에 활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국립중앙박물관 2018).

낙랑군樂浪郡이 설치되고 존속하였던 시기는 한·漢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서 고대 국가가 형성·발전하였던 역사의 획기이다. 낙랑군은 한반도 일대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사회·문화·정치적 변동과 역사상을 재구축하는데 뺄 수 없는 연구 대상 중의 하나이지만(정인성 2014), 일제강점기부터 축적되어 온 낙랑군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1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로 연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특히 80년대부터 낙랑토기를 원삼국시대 토기의 형성 및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적 계보의 원류로 상정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는 낙랑토기 자체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선형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편년의 시간적 상한선을 낙랑군 설치시기로 한정시키고, 물질문화 변화의 원인과 과정을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차단시켜 왔다.

1980년대 후반 다니 도요노부(谷豊信)가 낙랑토성 출토 토기를 소개하였지만(谷豊信 1984, 1985, 1986),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낙랑토성과 낙랑고분 출토 토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면서(오영찬 2001; 정인성 2002, 2003a, 2003b, 2004a, 2004b, 2005, 2007) 낙랑토기에 대한 이해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낙랑토성 출토 토기의 기종별 제작기법을 살펴본 정인성의 연구에 의해 1차 승문타날흔, 목제 내박자흔 등과 같이 다른 지

역의 토기와는 구분되는 낙랑토기의 속성이 알려지면서 한반도 각지에서 낙랑토기의 기형이나 제작기법이 확인되는 토기의 출토 예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김기옥 2012; 김길식 2001, 2006; 김무중 2004a, 2004b, 2006; 박경신 2020; 박경신·이재현 2011; 이재현 2005; 홍주희 2012; 황윤희 2012). 또한 최근에는 낙랑(계)토기에 더해 요동·산동계 토기를 변별하고 낙랑군 설치 단계부터 대방군 설치 이후까지 산동반도와 요동반도, 한반도와 일본 제 지역의 대외교류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정인성 2012a; 宮本一夫 2020).

물론 낙랑고분 출토 토기의 제작기법에 대한 검토도 있었지만(오영찬 2001),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의 대부분은 낙랑토성 출토 토기에 대한 연구에 기반한 것이다. 여러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낙랑토성과 낙랑고분 출토 토기에는 공통된 기종도 있지만 기종의 차이가 있으며, 낙랑토성 출토 토기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종, 기형, 제작기법의 변화를 살펴보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낙랑고분 출토 토기의 기종 분류 및 기종별 편년을 재검토하여, 낙랑토성 출토품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온 제작기술적 속성들을 고분 출토품을 포함한 낙랑토기 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토성 출토품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종합적인 낙랑토기 연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¹⁾

Ⅱ. 낙랑고분 출토 토기의 기종별 분류

1. 낙랑토기 분류 재검토

낙랑토기는 동시기 주변 지역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며, 다양한 태토와 기형을 가진 토기들로 분류할 수 있다(이나경 2013).

낙랑토기는 조사 초기단계부터 태토를 중심으로 한 분류가 시도되었다. 세키노 다다시는 1920년대 중반까지 조사된 낙랑고분과 낙랑토성 출토 토기, 그리고 낙랑고분에서 도굴된 수집품을 厚手白質陶器, 薄手灰黑質陶器, 綠釉赤質陶器로 구분하였다(關野 貞 1927: 290-294). 厚手白質陶器는 석영혼입계 태토의 용, 薄手灰黑質陶器는 동체부 외면에 승문타날이 이루어진

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낙랑고분 출토 토기 중에서 정식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진 자료로 대체하여 실었다.

타날문토기이며, 綠釉赤質陶器는 한묘漢墓 출토품을 기준으로 선형적으로 설정된 분류이다. 낙랑 지역에서 거의 출토되지 않은 녹유도기를 설정하고 태토 별 세부 기종의 종류가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낙랑토기는 기종별 태토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을 조사 초기부터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후 낙랑토성 출토 토기를 소개하고 분류한 다니 도요노부가 낙랑토기를 태토를 기준으로 활석혼입태토滑石混和胎土와 니질회색계태토泥質灰色系胎土, 백색태토白色胎土(谷豐信 1984, 1985, 1986, 2002)로 분류하였고, 이후 이러한 분류안은 미야모토 가즈오(2012, 2014, 2020)와 같은 일본인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다. 정인성 역시 태토를 기준으로 낙랑토기를 분류한 대표적인 연구자이다. 다니의 분류안과 거의 동일하지만 색상이 아닌 태토의 주요 성분을 기준으로 활석혼입계토기, 니질계토기, 석영혼입계토기로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003a, 2004a, 2012b).²⁾

이 외에 낙랑고분 출토 토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로 기형을 중심으로 분류가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의 분류안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낙랑토기 기존 분류안

谷豐信 (2002)	정인성 (2003a)	高久健二 (1995)	오영찬 (2001)	이나경 (2013)	정찬영 (1971)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88)
활석혼입토기	활석혼입계토기	화분형토기	화분형토기	화분형토기	꽃단지형질그릇	화분형단지(鉢形壺)
니질회색계토기	니질계토기	광구단경호(A, B) 호(평저장경호)	원저단경호 평저단경호 평저장경호	원저단경호 평저단경호 평저장경호	배부른단지 회백색중간단지 회백색작은단지 작은회색단지 작은노끈무늬단지	배부른단지(丸壺)
백색토기	석영혼입계토기	웅	웅	웅	크고 흰단지	배부른단지(丸壺)

양자는 구체적인 표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기형을 중심으로 한 분류 역시 태토를 기준으로 분류 가능하며, 태토를 1차 속성으로 삼은 분류안 역시 세부 기종 분류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정인성이 강조한 바와 같이 낙랑토기는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된 태토가 뚜렷하게 달라(정인성 2012b), 태토 간에 중복되는 기종이나 기형이 적다. 그렇지만 대옹大甕이나 대호大壺와 같은 기종은 활석혼입계와 석영혼입계 태토로 모두 제작되므로(정인성 2004b),

2) 여기에 ‘명사리식’으로 불리는 무문토기질의 토기류가 추가될 것이라 보았는데(정인성 2012b), 실제로 낙랑토성 출토 무문토기 자료가 공개된 바 있으므로(谷豐信 1986: 圖43-7) 이러한 분류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태토의 차이를 1차 속성으로 분류한 후 태토 별 기종 분류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낙랑토기 분류안

	낙랑토성	낙랑고분
활석혼입계토기	화분형토기	화분형토기
	정형토기	정형토기
	심발형토기	-
	천발형토기	-
니질계토기	원저단경호	원저단경호
	-	원저장경호
	평저단경호	평저단경호
	평저장경호	평저장경호
	-	평저합
	고배형토기	고배형토기
	완	완
	반	반
	뚜껑	뚜껑
	분	분
	원통형토기	이배
	시루	기대
	-	명기(부뚜막형토기 세트)
석영혼입계토기	옹	옹

2. 주요 기종별 분류

낙랑토기의 기종별 분류와 편년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박경신 2019; 오영찬 2001; 이나경 2013; 정인성 2002, 2003a, 2004a; 高久健二 1995; 宮本一夫 2020), 주로 대략적인 형태만 확인 가능한 일제강점기 및 광복 이후 북한 자료를 활용한 것이어서 세부적인 분류에는 한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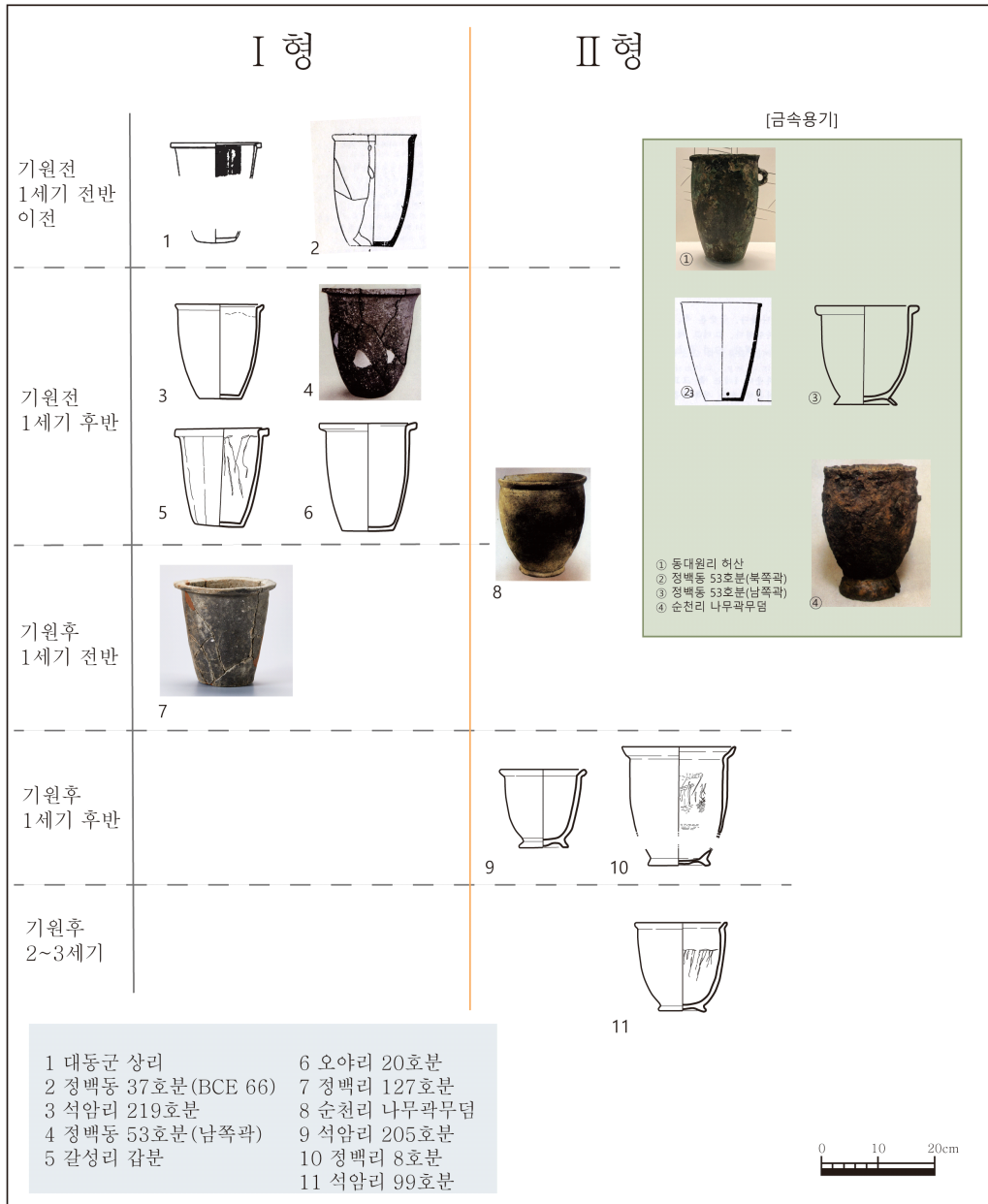
본고의 1차적인 목적은 낙랑토성 출토품을 대상으로 도출된 낙랑토기 제작기법이 낙랑고

분 출토품에도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략적인 기형 파악만 가능한 자료는 제외하고 상세한 기술과 도면이 공개된 것과 실제 관찰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기종별 분류 및 제작기법을 재검토하였다. 이 중에서도 전 시기에 걸쳐 고르게 출토되어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한반도 중부 이남 지역에서 출토되는 낙랑(계)토기와 비교 가능한 기종인 화분형토기와 원저호류, 평저호류, 그리고 석영혼입계 용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화분형토기

화분형토기는 낙랑토성과 고분에서 모두 출토되었으며, 대부분의 고분에 빠지지 않고 부장되는 주요 기종이다. 일찍부터 목곽묘에 부장된 평저의 화분형토기와 전실묘에 부장된 굽이 달린 화분형토기를 각각 전형典刑과 변형變形으로 구분하고, 양자의 대체적인 선후 관계를 설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를 각각 I, II 형으로 구분하였으며,³⁾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및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 북한 학계에서 발간된 보고서의 자료 중 양호한 상태의 것을 포함하여 [도 1]과 같이 분류하였다. 필자는 전고에서 I 형 화분형토기는 구연단부가 살짝 돌출된 형태에서 구연단부에 점토대를 부착하여 단면 장방형을 띠는 전형적인 I 형 화분형토기의 기형이 완성되고, 이후 회전력을 이용하여 구연부를 좀 더 외반시키는 형태로 변한 것으로 파악하였다(이나경 2013: 25-27). 또한 이른 시기에는 구경에 비해 기고가 높아 좁고 깊은 원통형을 띠며, 동체부가 완전한 좌우대칭을 이루지 못하고 완만한 곡선을 이루다가 점차 기고가 낮아지고 동체부에서 저부에 이르는 선이 직선화되며 좌우대칭을 이루는 형태로 변한다(이나경 2021: 39-43). 그리고 저부 역시 모가 죽은 완만한 말각평저의 형태에서 동체부와 저부 접합면이 완전하게 꺾이며 편평해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실견 가능한 것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기형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갈성리 갑분과 정백리 127호분 출토 화분형토기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이러한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도 2).

3) 단실 전실묘인 정오동 19호분에서 구연부와 동체부의 형태는 II 형 화분형토기와 동일하지만 평저인 화분형토기가 출토되어(사회과학출판사 2002: 402) I 형 화분형토기와 II 형 화분형토기로의 전환의 과정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제작기법을 공유하며 별개로 성립된 이후 형태적 요소가 혼합되었을 가능성을 제외할 수 없으므로 형태적 계승관계가 전제된 전형과 변형이라는 용어 대신 I, II 형으로 분류한다.



도 1. 낙랑고분 출토 화분형토기 분류안



도 2. 낙랑고분 출토 화분형토기(1: 정백동 37호분, 2: 갈성리 갑분, 3: 정백리 127호분)

영평永平 14년(기원후 71년)명 칠이배가 출토된 오야리 21호분의 예로 볼 때 기원전 1세기 후반에는 II형 화분형토기가 무덤에 부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반 유물로 볼 때 기원전 1세기 후반~기원후 1세기 전반으로 편년 가능한 순천리 나무곽무덤에서 II형 화분형토기가 출토되어 II형 화분형토기의 등장 시기는 좀 더 소급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화분형토기의 등장과 제작과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낙랑고분에서 출토된 금속용기인 동복과 철복이다. 낙랑지역에서 확인되는 화분형토기를 비롯한 활석혼입계 토기 대부분의 기종은 전국시대는 물론 한대漢代에도 보이지 않는 낙랑지역에서만 확인되는 독특한 기종들이 대부분이다(정인성 2014). 앞에서 언급한 순천리 나무곽무덤에서 II형 화분형토기와 기형이 매우 유사한 굽달린 철복이 공반하였으며(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59), 정백리 53호분에서도 I형 화분형토기와 함께 평저 및 대각이 달린 철복이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고고학연구소 1978: 33-35). 이 중에서도 화분형토기 대신 소형 원저단경호와 부장된 동대원리 허산에서 출토된 동복이 주목된다(도 3). 이 동복은 기형이나 크기, 구연부 형태 등이 이 시기 화분형토기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구연부 단면의 형태가 방형이며, 한쪽면에 거푸집을 이용한 주조흔이 세로로 길게 남아 있어, 물론 세부적인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틀’을 이용하여 제작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확인된다. 평양과 그 주변 지역에서 확인되는 동복은 전형적인 초원 지역 동복보다 오히려 이 지역에서 유행한 화분형토기에 가까운 기형이라는 지적도 주목할 만하다(장은정 2018: 528). 즉 낙랑 지역 화분형토기는 ‘형뜨기’ 기법을 채택하고 활석혼입계 태토를 사용했다는 점에서는 전국~한대 활석혼입계 토기의 영향을 받았지만, 형뜨기 기법을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채택하였다는 점이나 기형으로 볼 때 낙랑지역의 동복 및 철복의 제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도 3. 동대원리 허산 출토 동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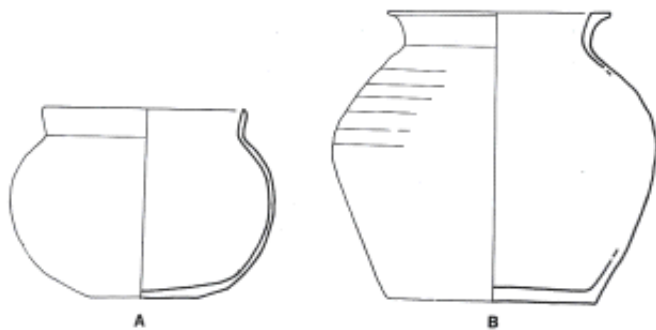


도 4. 석암리 219호분 출토 철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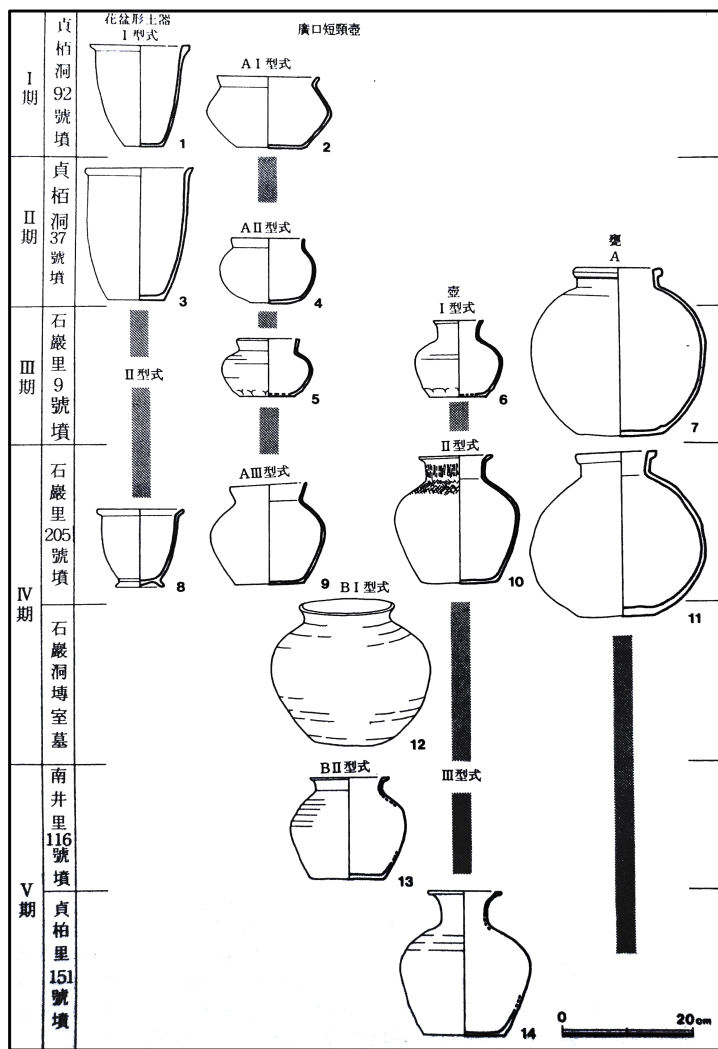
2) 원저단경호

낙랑토기 중 호류에 대한 분류는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정확한 기형이나 제작기법을 확인하기 어려운 북한에서의 조사 결과나 완형의 출토 예가 적은 낙랑토성 출토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서로 다른 기종이 동일한 범주로 묶이거나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른 분류가 이루어짐으로써 비교연구가 어려운 등 연구의 한계로 작용해 왔다. 예를 들어 낙랑무덤 출토품으로 기종 및 기종 내 형식분류를 시도한 다카쿠 겐지(高久健二)는 기고에 비해 구경이 넓은 토기를 ‘광구단경호’로 설정한 후 기고가 낮으며 소형인 것을 A형, 기고가 높아지고 구연부가 꺾이며 외반하는 것을 B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그의 A형 광구단경호에는 평저단경호와 원저단경호가 혼재되어 있으며(도 5), 평저장경호만을 ‘호’로 분류하여 낙랑토기에 속한 호류를 모두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도 6).

이에 본고에서는 낙랑토성과 낙랑고분에서 출토된 호류를 크게 ‘원저(단경)호’와 ‘평저호’로 분류하고, 평저호를 다시 평저단경호와 평저장경호로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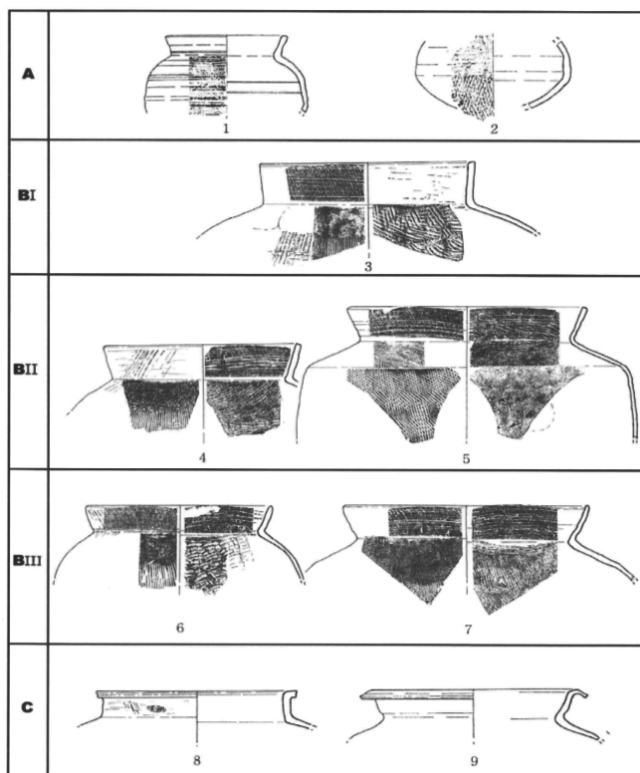
도 5. 高久健二의 광구단경호 분류안(高久健二 1995: 도6)



도 6. 高久健二의 낙랑고분 출토 토기 편년도(高久健二 1995: 도11)

니질계토기의 대표 기종인 원저단경호는 원삼국시대의 환원염 소성 타날문토기의 발생과 계보, 특히 영남지역에서 와질토기 발생을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기종이다(정인성 2014: 116-117). 낙랑토성 출토품을 대상으로 한 기존 분류에서는 원저단경호를 A, B, C형으로 분류하였다(정인성 2007). [도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A형은 소형의 원저단경호로 경부와 동체부는 회전물손질, 저부는 승문타날에 의한 정면이 이루어진 것이다. 낙랑토성 출토 원저단경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B형은 대형의 원저단경호로 경부를 제외한 동체의 거의 전면에 승문타날이 이루어졌으며, 소수의 C형 원저단경호는 경부를 제외한 동체부의 전면에 무문타날 혹은 평행타날이 이루어진 것이다.

(1) 소형 원저단경호



도 7. 낙랑토성 출토 단경호 기존 분류안(정인성 2007: 그림 1)

낙랑고분에서 출토된 원저단경호는 크게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 가능하다. 기존 분류안에서 A형 단경호로 분류되었던 것을 소형 원저단경호, B형과 C형을 대형 원저단경호로 분류하였다. 소형 원저단경호의 특징은 구연부를 제외한 동체부~저부 전면을 타날하여 기형을 부풀리는 B, C형 원저단경호와 달리 동최대경 윗부분은 회전물손질, 동최대경에서 저부는 승문타날로 기형을 조정한다는 점이다. 소형 원저단경호는 낙랑토성에서 완형으로 출토된 예가 거의 없으나, 낙랑 고분에서는 화분형태기와 조합을 이루며 부장되는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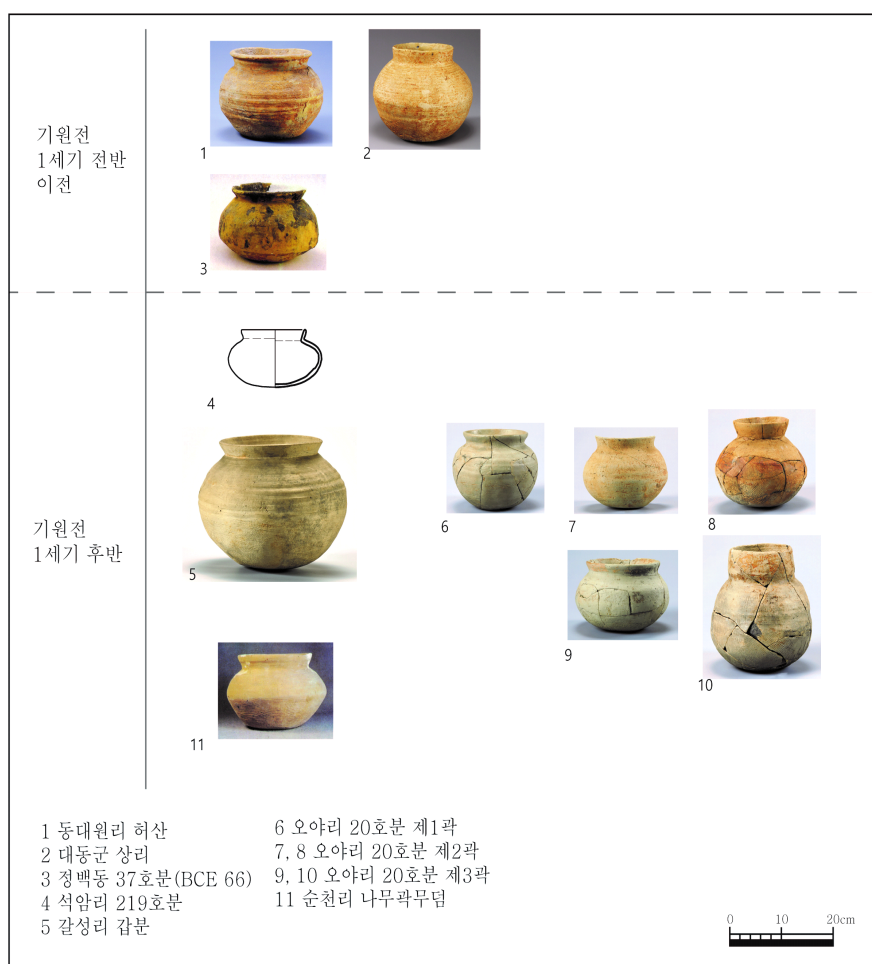
적인 토기로 [도 8]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서북한 지역 초기의 원저단경호인 대동군 상리 출토품의 경우, 전체적인 기형이나 직립하는 구연부, 평저 기미의 저부, 동중상위의 요철면과 동중하위의 사방향 승문타날이 남아 있는 점 등에서 하북성이나 요동 지역에서 출토된 전국 말의 타날문토기와 유사하다. 즉 서북한 지역의 초기 원저단경호는 전국시대 말의 요동지역 토기에서 그 계보를 구할 수 있으나, 전국 말~서한 초에 해당하는 중국 지역 타날문토기의 대부분은 평저의 기형을 유지하며, 한대가 되면 중원지역 뿐만 아니라 요동지역 내에서도 타날에 의한 제작 자체가 감소하므로 이후의 전개 양상은 낙랑군 지역 내에서의 자체적인 변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이나경 2013).

동대원리 허산과 대동군 상리 출토품의 경우 환저화를 위해 승문타날을 하였음에도 평저의 기형을 따는 것과 달리, 정백동 37호분에서 출토된 소형 원저단경호는 초기 단계의 원저화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도 8-3). 지절地節 4년(기원전 66년)명 칠곽이 출토된 정

백동 37호분에서는 소형 원저단경호와 I 형 화분형토기가 칠기, 청동용기류(청동정, 청동렴 등), 연호문경 등과 공반하여 동대원리 허산과 대동군 상리에 비해 늦은 시기에 조영된 것으로 편년할 수 있다.

평저의 기형을 가지는 초기형 이후 기원전 1세기 후반에 들어서면 동胴 중위中位 이상 회전물손질에 의한 요철면, 동 중위 이하 승문타날이라는 이전 시기의 제작 기법 및 시문법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완전한 원저의 기형을 갖추는 변화가 보인다. 특히 대형 원저단경호와 평저단경호가 공반한 오야리 20호분에서는 동일한 제작기법으로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소형 원저단경호가 출토되었다. 지금까지의 자료로 볼 때 소형 원저단경호는 기원 전후한 시기 이후의 고분에서는 더 이상 부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도 8. 낙랑고분 출토 소형 원저단경호 분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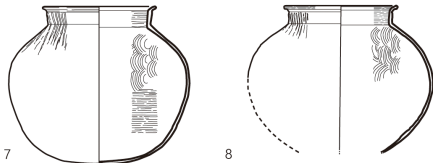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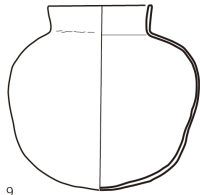

(2) 대형 원저단경호

대형 원저단경호는 고분에는 부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으나,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낙랑고분에서 출토된 대형 원저단경호가 소장되어 있다. 대형 원저단경호는 기원전 1세기 후반에 등장하며, 지금까지의 자료로 볼 때 갈성리 갑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대형 원저단경호가 출토된 것으로 보인다(도 9-1). 갈성리 갑분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다른 고분 출토품에 비해 크기가 큰 소형 원저단경호와 화분형토기, 그리고 뒤에서 살펴볼 소형 평저단경호가 공반하였다. 이와 같이 갈성리 갑분과 오야리 20호분을 비롯한 기원전 1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고분에 전면에 승문타날을 가하고 동최대경이 동 중하위에 위치한 대형 원저단경호가 부장되었으나, 현재의 자료로 볼 때 기원후 1세기 전반의 자료는 확실하지 않다. 기원후 1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정백리 8호분에서는 직립하는 짧은 경부에 크게 꺾이며 외반하는 구연단부, 그리고 동최대경이 동체부 중상위에 위치한 형태의 대형 원저단경호가 출토되었다. 그러나 신수경神獸鏡이 출토되어 기원후 2세기 대로 편년되는 락랑동 14호분에서 동체부 전면에 승문타날이 이루어지고 직선적으로 외반하는 구연의 원저단경호가 출토된 것으로 보여(사회과학출판사 2002: 236-242),⁴⁾ 기원후 2세기 대에도 직선적으로 외반하는 구연부를 가진 대형 원저단경호가 지속적으로 제작,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양동리 3호분(국립중앙박물관 2001: 93-95) 출토품으로 볼 때 기원후 3세기 전반까지도 승문타날이 이루어진 대형 원저단경호가 제작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형 원저단경호의 저부는 모두 완전한 원저가 아닌 말각 평저에 가깝다.

이 외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원저단경호 중 앞의 대형 원저단경호와 제작기법을 공유하지만 다른 기형을 가진 자료의 존재를 확인하였다(도 9-5, 6). 해당 토기는 정확한 출토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석암리 257호분에서도 동일한 기형의 토기가 출토되어 기원전 1세기 후반에는 경부와 구연부 직경이 좁고, 경부가 직선적으로 길게 외반하며, 동체부 형태가 구형에 가까운 원저단경호가 공존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원저단경호는 저부가 보다 원저에 가깝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전자를 I형, 후자를 II형으로 분류하였다. 대형 원저단경호 II형에 속하는 다른 자료는 확인하지 못하여 이후의 변화 양상은 살펴보지 못

4) 락랑동 14호분 출토 원저단경호는 도면이나 사진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보고서의 유물 기술로 볼 때 오야리 20호분에서 출토된 대형 원저단경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제시된 유물 설명(노끈무늬단지)은 다음과 같다: “중간형의 단지로 몸체는 둥그스름하며 목은 우로 해바라지다가 곧추 끝났다. 어깨부분에서부터 밑창까지 노끈무늬를 돌치었다. 겉면은 황갈색이고 안면은 검은색을 띠었다. 보드라운 진흙으로 만들었다(사회과학출판사 2002: 236-242).”

하였으며,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I 형	II 형
기원전 1세기 전반 이전		
기원전 1세기 후반		
기원후 1세기 전반		
기원후 1세기 후반		
기원후 2~3세기		<div> <p>1 갈성리 갑분 2 오야리 20호분 제3곽 3 오야리 20호분 제1곽 4 지탑리토성 5, 6 출토지 미상(석암리?) 7, 8 정백리 8호분 9 양동리 3호분</p> </div> 

도 9. 낙랑고분 출토 대형 원저단경호 분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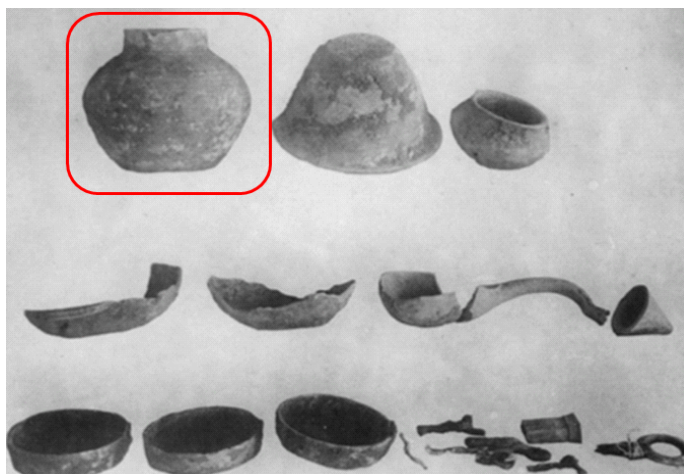
3) 평저단경호

평저단경호 역시 현재까지의 자료로 볼 때 기원전 1세기 후반에 등장한 기종으로 보인다. 초현기의 평저단경호는 동최대경이 동체부 하위에 위치하며 동체부와 저부 접합면을 깎기 조정

하였으나 조정한 면이 고르지 않다. 이후 동최대경이 동체부 상부~견부에 위치하며 기고가 높아지는 등의 일정한 변화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제작된다. 양동리 3호분에서 거의 직립하는 구연부를 가진 평저단경호가 출토되었는데(도 10-13), 이와 거의 동일한 자료가 대동강면 고분(동분)에서도 출토되어 기원후 3세기 대에 새롭게 등장한 기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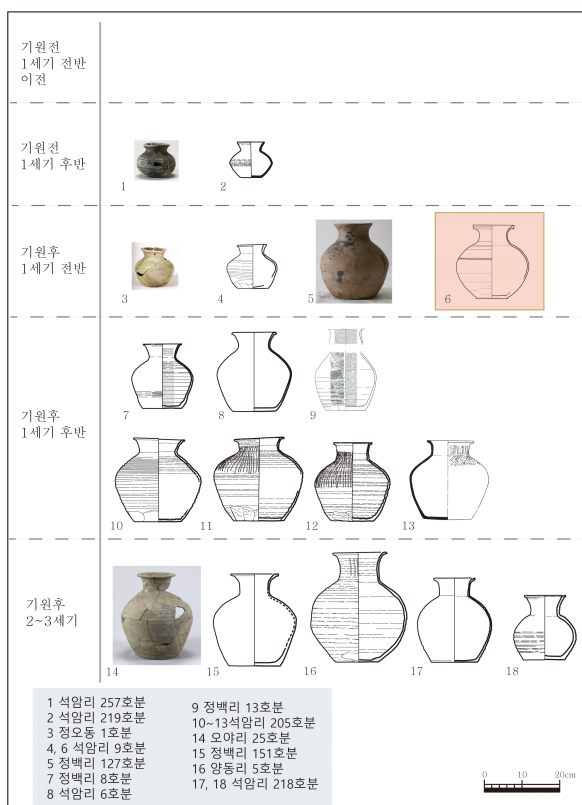
도 10. 낙랑고분 출토 평저단경호 분류안



도 11. 대동강면 고분(東墳) 출토품(朝鮮總督府 1915· 도 61)

4) 평저장경호

평저장경호 역시 현재까지의 자료로 볼 때 기원전 1세기 후반 경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석암리 219호분에서 평저단경호와 공반하여 처음부터 평저단경호와 평저장경호는 서로 다른 기종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도 12-2). 평저장경호 역시 초기에는 동최대경이 동체부 중위~중하위에 위치하다가 점차 동체부 중상위~전부로 올라가며, 기고가 높아지는 변화가 확인된다. 기원후 3세기 대에는 경부의 길이가 길어지며 구연단부가 크게 꺾이는 형태가 주로 제작된다. 기원후 1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석암리 9호분에서 출토된 평저장경호 1점(도 12-6)은 기벽이 매우 얇으며, 회전판에서 토기를 분리할 때 실로떼기 기법을 사용하는 낙랑토기 평저호와 달리 저부 외면에 동심원상의 흔적이 남



도 12. 낙랑고분 출토 평저장경호 분류안

아 있고 기형에서도 차이가 있어 외부에서 제작된 후 낙랑지역으로 입수된 것으로 보인다.

5) 석영혼입계 옹

석영혼입계 옹 역시 기원전 1세기 후반 경 낙랑고분에 부장되기 시작하는 기종이다. 석영 혼입계 옹 역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분류가 이루어져 왔으며(도 13), 낙랑고분 출토품을 대상으로 분류한 결과는 [도 1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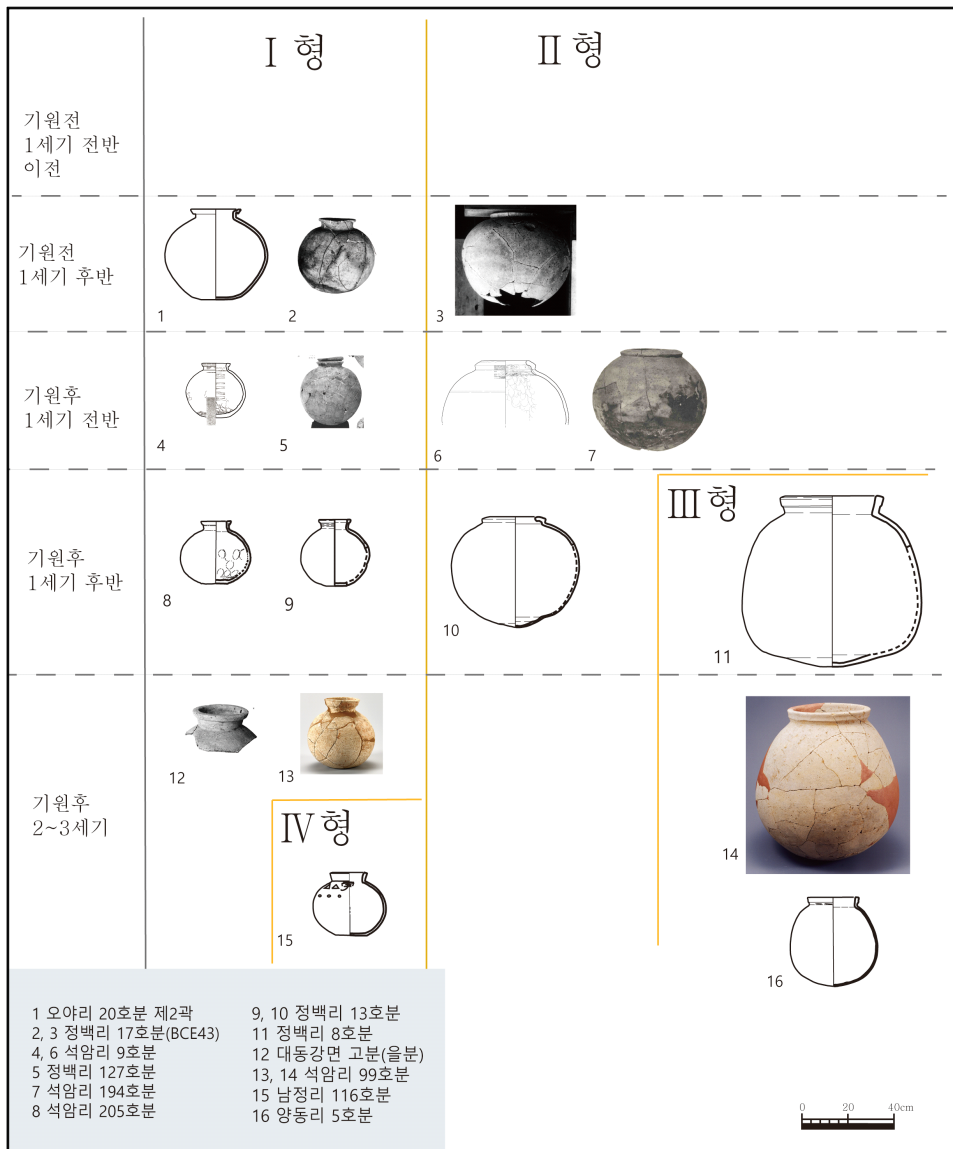
谷氏案	A		B		
高久氏案	A	B	C		
簠者案		A	B	C	D
	口緣部形態				
		I	II		
	胴部形態				
			a	b	
底部形態					

도 13. 기존 석영혼입계 옹 분류안
(정인성 2002: 제2장 제7절 도1)

영광永光 원년(기원전 43년)명 칠이배가 출토된 정백리 17호분에서 I, II형 석영혼입계 옹이 모두 출토되어 출현 시기부터 I, II형이 공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I형은 기형 상의 큰 변화 없이 기원후 1세기 후반까지 이어지는데, 동최대경의 위치가 동체부 중상위에서 중하위로 이동하는 양상이 보인다. 대동강면 고분(을분)의 자료로 볼 때 기원후 2세기 이후에도 I형 석영혼입계 옹은 기형의 큰 변화 없이 지속된다. 또한 석암리 99호분 출토품과 같

이 경부가 매우 짧아지고 구연단부의 점토피도 얇아지며 전체적인 기형이 호에 가까운 석영혼입계 웅이 등장한다(도 14-13, 도 15).

이 외에도 기원후 1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오야리 21호분에서 경부에 돌대가 있는 석영혼입계 웅이 출토되어 소수이지만 다양한 기형을 가진 석영혼입계 웅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장 늦은 단계에는 호에 가까운 기형에 외반하며 직립하는 구연부를 가진 IV형 석영혼입계 웅이 등장한다(도 14-15).



도 14. 낙랑고분 출토 석영혼입계 웅 분류안

기원전 1세기 후반부터 등장하였던 Ⅱ형 석영혼입계 웅 역시 기원후 1세기 후반까지 지속되다가 기원후 2세기 대 이후로는 확인되지 않아 기원후 1세기 후반 경 등장한 Ⅲ형 석영혼입계 웅에 의해 대체되는 것으로 보인다. Ⅱ형 석영혼입계 웅은 동최대경이 동중위에 위치한 구형에서 동최대경 위치가 중상위로 올라오는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초현기부터 동최대경이 저부 가까이 위치했던 Ⅲ형은 동최대경 위치는 유지된 채 동체부가 장동화되는 형태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I, IV형은 모두 저부 형태는 말각평저이며 기고가 25cm 내외인 중소형 토기이고, II, III형은 이와 달리 원저의 저부를 가진 40~80cm의 대형토기라는 점에서 뚜렷하게 구분된다.⁵⁾ 이로 볼 때 낙랑 사회 내부에서 용량에 따른 기능 차이와 수요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 15. 석암리 99호분 출토 화분형토기, 석영혼입계 웅(국립중앙박물관 2001a: 도 153)

5) 오야리 20호분 제2곽에서 출토된 I형 석영혼입계는 I형 중에서 크기가 큰 편이고, 오야리 21호분에서는 기고 약 25cm 가량인 소형의 II형 석영혼입계 웅이 출토되어 각 형식의 웅이 모두 동일한 규격으로 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태 별로 선호되었던 규격이 있었던 것은 인정할 수 있다.

Ⅲ. 낙랑고분 출토 토기의 제작기법 검토

1. 화분형토기

활석혼입계 토기의 대표적인 기종인 화분형토기는 일찍부터 특징적인 기형으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활석이 혼입된 태토와 내면의 포목흔, 그리고 틀을 이용하여 만드는 제작기법의 특징이 지적되어 왔으며(高久健二 1995; 오영찬 2001; 谷豊信 2002; 정인성 2004b; 宮本一夫 2012), 태토 선정과 형뜨기 등 제작기법의 연원을 전국시대 연식부燕式釜 또는 요동식부遼東式釜에서 찾는 등 주로 계보와 상한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화분형토기 역시 기존의 연구를 통해 알려진 화분형토기 제작기법과 마찬가지로 저부를 포함한 내면 전체에 포목흔이 남아 있어, 원형이 되는 틀에 천을 대고 그 위로 점토판을 붙여 제작한 ‘형뜨기’ 기법으로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저부 내면에는 포목흔이 겹쳐진 예가 없고 동체부 내면에는 포목이 겹쳐진 흔적이 다수 남아 있어 원형틀을 거꾸로 놓은 후 포목의 중앙 부분을 저부에 놓은 후 동체부를 감싼 것으로 보인다. I형 화분형토기 뿐 만 아니라 II형 화분형토기인 정백리 8호분 및 석암리 99호분 출토품에도 동체부 및 저부 내면에 포목흔이 남아있어 동일한 ‘형뜨기’ 기법으로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점토판을 이용한 형뜨기일 가능성이 높지만 포목흔 아래에서 횡방향의 점토띠 접합흔이 관찰되지 않아 자료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나(정인성 2004b: 11), 오야리 20호분 제1곽에서 출토된 화분형토기를 관찰한 결과 세로로 긴 동일한 너비의 점토판 4개를 등간격으로 붙여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대동군 상리 출토품 등 대부분의 화분형토기에서 동체부 내면에서 점토가 종방향으로 좁게 돌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도 16-위).⁶⁾ 돌출된 점토 위에도 포목흔이 남아 있는데, 원형틀에 천을 대고 그 위로 점토판을 붙여 두드려 완성하는 화분형토기의 제작기법을 고려하면, 점토판을 두드려 기형을 다듬는 과정에서 원형틀의 틈 사이로 점토가 밀려 들어간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화분형토기의 원형틀은 틈이 없는 고정된 형태의 원통형이 아니라 한쪽 면이 살짝 떨어져 있는 형태였을 것이며, 이는 토기에서 원형틀을 쉽게 떼어내기 위한 고안인 것으로 추정된다.

구연부는 I, II형 모두 형뜨기로 제작한 동체부를 정치시킨 후 그 위로 점토띠를 붙이고 회전물손질하여 완성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구연부는 점토띠를 부착한

6) 이러한 흔적은 낙랑고분 출토 화분형토기 뿐만 아니라 가평 달전리, 춘천 우두동, 남양주 금남리 유적 등 북한강유역 분묘에서 출토된 화분형토기에서 모두 확인된다(이나경 2021: 27).



도 16. 대동군 상리 출토 화분형토기
(위: 구연부 및 동체부 내면, 아래: 저부 내·외면)

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나, 동체부는 원형틀과 포에 점토판을 부착한 다음 무문타날을 가하여 정면하였다. 직접 관찰한 화분형토기 대부분에서 동체부 외면 전체에 약 3.5cm 내의 너비의 수직 방향 정면흔이 남아 있었는데, 화분형토기 동체부의 성형을 위한 정면은 타날 박자가 기면에 닿는 면적(직경 약 3.5cm) 만큼 동체 상부~동체 하부의 수직 방향을 기본 단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동군 상리 출토 화분형토기는 아주 미세한 올의 비단을 사용한 다른 화분형토기와 달리 비교적 올이 굵은

포목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도 16). 대동군 상리 출토품 이외에 동시기의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여 이러한 차이가 시기 차를 반영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토기 제작에 미세한 올을 가진 비단을 사용하는 것은 올의 틈 사이로 점토가 밀려 나가 원형틀과의 분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원저단경호

1) 소형 원저단경호

원저단경호의 제작기법 연구는 낙랑토성 자료로 많이 확보되어 있는 대형 원저단경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낙랑토성 출토 소형 원저단경호에 대한 기존의 관찰 결과를 살펴보면, 구경부에 승문의 1차 성형타날 흔적이 남은 것이 있으나 승문 내박자흔이 남은 자료는 없으며, 동부 중상위와 구연부에 비교적 강한 회전물손질흔이 남아 있다고 보았다. 이로 볼 때 점토피를 쌓은 후 승문타날을 가해 성형한 다음 녹로의 회전을 이용해 구연부와 동체부를 조정하고, 녹로에서 떼어낸 이후 승문타날구로 저부를 두드려 저부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았다(정인성 2007: 99-10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낙랑토기 소형 원저단경호를 관찰한 결과, 모두 동최대경 위쪽에는 회전물손질에 의한 요철면이, 동최대경 아래쪽에는 승문타날이 남아 있었다. 소형 원저단경호 편년안(도 8)에 따르면 기원전 1세기 후반의 늦은 시기가 되면 점차 저부가 원저에 가깝게 만들어지지만, 제작 초기에는 말각평저에 가까운 형태이다. 이 경우 대략적인 도면만 제시된 경우 뒤에서 살펴볼 소형 평저단경호와 구분이 어려워 연구 과정에서 두 개의 기종이 섞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으나, 저부 원저화를 위한 승문타날의 여부로 양자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동대원리 허산과 대동군 상리 출토품에서는 원통형의 기본형태를 제작하기 위한 1차 승문타날흔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오야리 20호분 제1~3곽 내부에서 출토된 소형 원저단경호 4점에서는 구연부와 동체 상부의 외면에 이어지는 종방향의 1차 승문타날흔이 모두 확인되어, 회전물손질로 동체부와 구연부의 기형 조정을 하기 이전에 승문 타날구를 이용한 1차 성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호와 3호 목곽에서 출토된 소형 원저단경호(도 17-5, 6)에서



도 1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낙랑 소형 원저단경호
(1: 동대원리 허산, 2: 대동군 상리, 3~6: 오야리 20호분)



도 18. 소형 원저단경호 세부

는 구연부 내면에도 횡방향의 1차 승문타날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 승문 내박자흔이 남은 자료는 없다고 본 기존의 연구와 달리 소형 원저단경호의 경우에도 대형 원저단경호 제작 기법이 적용된 예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3호 목곽에서 출토된 소형 원저단경호(도 17-6)의 내면을 살펴보면, 구연부 내면에는 횡방향의 1차 승문타날흔, 동체 상부에는 횡방향의 무문 평행타날흔, 동체 중하부와 저부 바닥면에는 목제내박자흔이 남아 있어 대형 원저단경호의 제작기법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도 18-3). 낙랑토기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관찰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 내리기는 어려우나 구경에 비해 기고가 낮고 구경이 넓은 기존의 소형 원저단경호 기형을 유지하고 있는 토기(도 17-3, 4)는 외면에만 종방향으로 승문 타날구를, 내면은 무문 내박자를 사용하여 1차 성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른 시기의 자료에서는 구연부와 동체 상부의 1차 승문타날흔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17-1, 2) 이와 같은 소위 ‘낙랑토기 제작기법’은 기원전 1세기 후반 경에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추가 자료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대형 원저단경호와 달리 소형 원저단경호는 동최대경을 경계로 아래·위의 정면 기법이 다르다. 또한 동최대경이 돌출되어 뚜렷한 경계면을 이루거나, 이 부분이 다른 부위에 비해 회전물손질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접합면이 확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동체 상부의 1차 성형이 완료된 후 아랫부분을 접합한 후 타날하여 기형을 조정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2) 대형 원저단경호

대형 원저단경호는 낙랑토성에서 출토된 원저단경호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원저단경호의 제작기법은 이 기종을 중심으로 검토되어 왔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구연부와 견부를 제외한 전면에 승문타날이 시문되는 대형 원저단경호는 분형토기, 나아가 낙랑기와와 제작기법을 공유하는 기종이다. 이 기종의 제작 공정은 ‘점토피를 쌓고 승문타날을 하여 ‘기본형’을 제작(1차 성형타날) → 목제 내박자를 이용하여 동체부를 두드려내어 기형을 조정(2차 성형) → 구경·구연부 회전물손질 → 견부 무문타날’이라는 순서로 알려져 있다(정인성 2007: 100-101). 특히 노끈을 감은 봉상의 내박자를 사용하는 것과 2차 타날에서 나이테를 남기는 목제 내박자를 사용하는 것은 낙랑지역의 특징으로 지적되어 왔다.

주지하다시피 이 기종은 한반도 중서부 및 영남지역의 원삼국시대 타날문 단경호와 형태적 유사성이 높아 타날문 단경호의 출현과 전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낙랑토성 출토품을 중심으로 도출된 제작기법 상의 특징이 고분 출토품을 포함한 낙

랑토기 전체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낙랑고분에서는 이러한 대형 원저단경호의 출토 예가 많지는 않아 완형에 가깝게 복원되어 현재 관찰 가능한 자료는 갈성리 갑분, 오야리 20호분, 정백리 8호분, 양동리 3호분 출토품 등이 있다. 그리고 고분 출토품은 아니지만 지탐리토성 출토품이 남아 있다(도 19).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분 출토품 중 대형 원저단경호의 수량은 많지 않지만, 토성 출토품과 달리 저부까지 완형으로 남아 있어 토기의 전체적인 기형과 제작기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도 1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대형 원저단경호 I 형

(1: 갈성리 갑분, 2: 출토지 미상(석암리?), 3: 오야리 20호분 제1곽, 4: 오야리 20호분 제3곽, 5: 지탐리토성, 6: 정백리 8호분)

갈성리 갑분과 오야리 20호분 제1곽에서 출토된 대형 원저단경호는 표면 박리가 심하여 정확한 제작기법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나머지 토기를 대상으로 제작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도 20. 대형 원저단경호 I 형 세부(1: 오야리 20호분 제3곽, 2: 지탑리토성, 3: 정백리 8호분)

[도 20]에서 볼 수 있듯이 고분에서 출토된 대형 원저단경호 역시 구연부~견부 외면에 오른쪽 아래로 기울어진 종방향 1차 승문타날흔이 남아 있다. 구연단부 형태 등 기형에서는 변화가 생겼지만 정백리 8호분 출토 원저단경호에서도 이러한 제작흔이 남아 있어(도 20-3), 승문타날을 가해 원통형의 기본형을 만든 이후 회전물손질로 구연부와 동체부 형태

를 조정하는 제작기법이 기원후 1세기 후반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지탑리토성 출토품에서는 구연부 내면의 1차 승문타날흔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오야리 20호분 제3곽과 정백리 8호분 출토품에서는 구연부 내면에서 횡방향의 1차 승문타날흔이 확인된다. 지탑리토성 출토품의 건부 외면에는 횡방향의 평행 무문타날흔이 남아 있는데, 바로 아래로 이어지는 동체부의 2차 승문타날 끝 부분을 조금씩 지우고 있어 동체부 2차 승문타날이 끝난 후 건부 평행 무문타날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점 모두 동체부와 저부의 내면 전체에 직경 약 3cm의 원형 내박자흔이 남아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 목제 내박자흔으로 일컬어졌던 것과 유사한 형태이다. 이로 볼 때 외면은 부위에 따라 타날구를 바꾸는 것과 달리 내면은 동일한 내박자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낙랑고분 출토품 중 정확한 출토지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⁷⁾ 동일한 제작기법을 공유하는 변형된 형태의 대형 원저단경호를 확인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석암리 257호분에서 동일한 기형의 토기가 출토된 것을 확인하여, 아래의 2점 역시 기원전 1세기 후반경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도 21).



도 2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대형 원저단경호 II형

7) 유물과 함께 남아 있는 기록으로 볼 때 ‘석암리’ 출토품일 가능성이 있다.

대형 원저단경호 II형 역시 구연부에서 동체부로 이어지는 면까지 이어진 종방향의 1차 승문타날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다만 구연부 내면에서는 1차 승문타날흔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회전물손질에 의해 지워진 것이 아니라 1차 성형타날 당시 무문 내박자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직경이 좁고 긴 구경부에서 급격하게 꺾이며 견부로 이어지는데, 종방향의 승문타날과 횡침선이 시문된 동체부의 2차 타날흔 끝부분이 견부의 평행 무문 타날에 의해 지워졌다. 남아 있는 흔적으로 볼 때 대형 원저단경호 I형에 비해 견부의 무문 평행 타날이 더욱 적극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동체부와 저부 내면에는 대형 원저단경호 I형과 마찬가지로 목제 내박자흔이 남아 있다.

기원후 2~3세기 대의 자료가 부족하여 이러한 제작기법이 계속 유지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양동리 3호분에서 출토된 대형 원저단경호는 저부에만 승문타날흔이 남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의도적으로 타날을 지워 앞에서 살펴본 제작기법이 확인되지 않는다(국립중앙박물관 2001b: 37). 그러나 이 고분이 황해도에 위치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동리 3호분 출토품이 기원후 3세기 대의 낙랑 대형 원저단경호의 양상을 대표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3. 평저호

평저호류는 낙랑토성에서의 출토 예가 많지 않아 이 기종의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살펴본 평저단경호와 평저장경호는 [도 22]와 [도 23]과 같다.

관찰 결과 단경호와 장경호라는 세부 기종 차이에 상관없이, 평저호류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제작기법으로 제작된 것을 확인하였다. 기원후 2세기 대까지는 저부 원판 위로 점토띠를 쌓아 올린 후 타날하여 1차 성형을 하고 회전물손질을 하여 토기 형태를 완성시키는 제작기법이 지속적으로 이용되었다. 형태를 완성시킨 후에는 정지 상태에서 실로떼기 기법으로 회전대에서 토기를 분리시켰다. 현재 실견 가능한 것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오야리 20호분 제2곽 출토 소형 평저단경호(도 22-1)는 저부와 동체부 접합면이 움푹 패여 경계를 이루고 있어 평저호 제작의 초기 단계를 보여주는 자료로 보인다. 초기의 평저단경호는 도면으로만 제시된 경우 소형 원저단경호와 구분이 힘든 경우도 있는데, 동체부 중하위와 저부를 타날로 정면하는 원저호와 달리 회전대 위에서 회전력을 이용한 정면이 초기부터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결과 저부 내면에는 회전력에 의한 나선형이 뚜렷하게 남으며(도 24), 동체부 외면 전체에 회전력에 의한 요철면이 선명하게 남는 것이 특징이다. 회전대에서 분리된 토기는 동체부와 저부 경계면 및 저부 가장자리를

정지깎기로 조정하여 마무리하였다. 모든 자료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구연부 외면에 종 방향의 1차 승문타날흔이 남은 예가 있다(도 25). 원저호와 달리 구연부 내면에서는 1차 승문타날흔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제작기법상의 특징은 정인성(2014: 114~115)이 언급한 원통형토기와 동일한 것으로, 양자는 제작기법을 공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 2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평저단경호

(1: 오아리 20호분 제2곽, 2 갈성리 갑분, 3 류정리 3호분, 4 석암리 9호분, 5 석암리 99호분, 6 남정리 53호분, 7 오아리 25호분, 8 남정리 116호분, 9 양동리 3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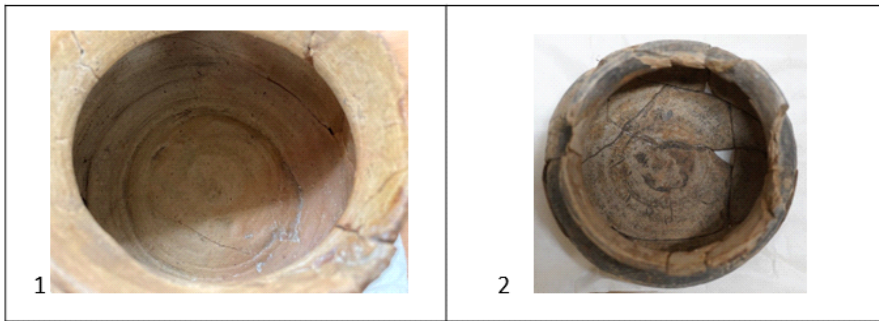
기원후 3세기 대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강한 회전력을 이용한 제작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 구연부 외면에 1차 승문타날흔이 확인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기벽이 얇아지며, 구연단부의 외반도가 커진다. 특히 남정리 116호분 출토 평저단경호는 저부 외면에 회전 사절흔이 남아 있어 이러한 점을 뒷받침해준다.

이 외에 기원후 2~3세기의 자료 중에서 견부에 종방향으로 선들을 긋거나 굽어낸 예가 있는데(도 26), 여러 조의 선이 하나의 단위를 이루어 등간격으로 배치되고 있어 문양의 효과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가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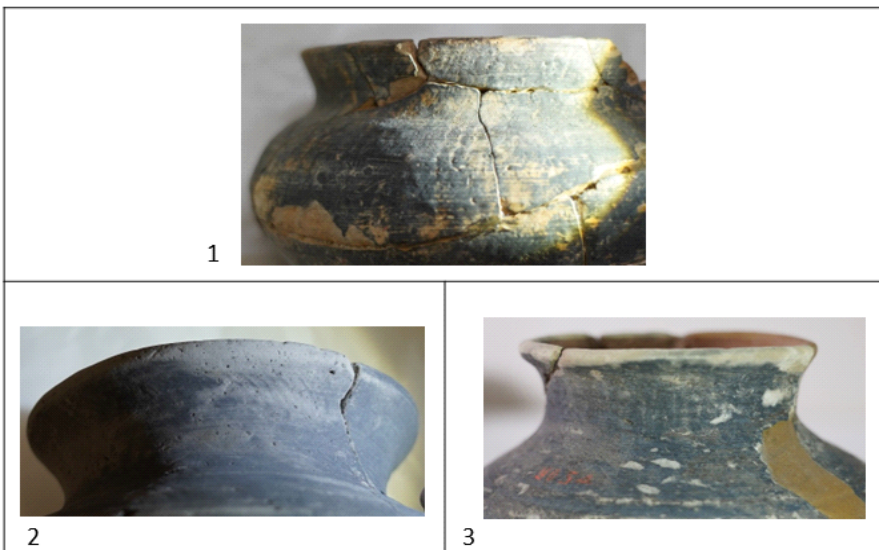


도 2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평저장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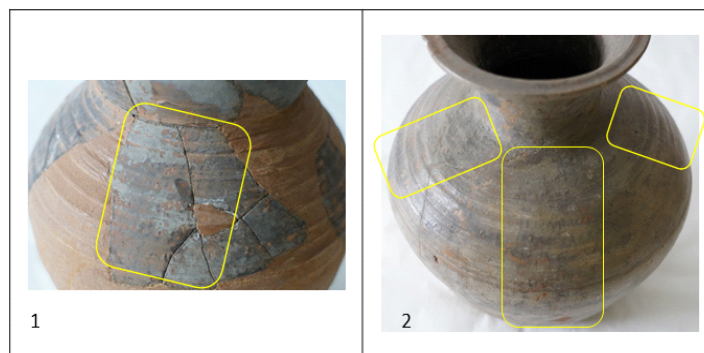
(1: 석암리 257호분, 2: 석암리 9호분, 3: 정백리 127호분, 4: 오아리 25호분, 5: 정백리 151호분, 6: 양동리 3호분)



도 24. 평저단경호 저부 내면(1: 오아리 20호분 제2곽, 2: 류정리 3호분)



도 25. 평저호 구연부 세부
(1: 류정리 3호분, 2: 석암리 257호분, 3: 남정리 53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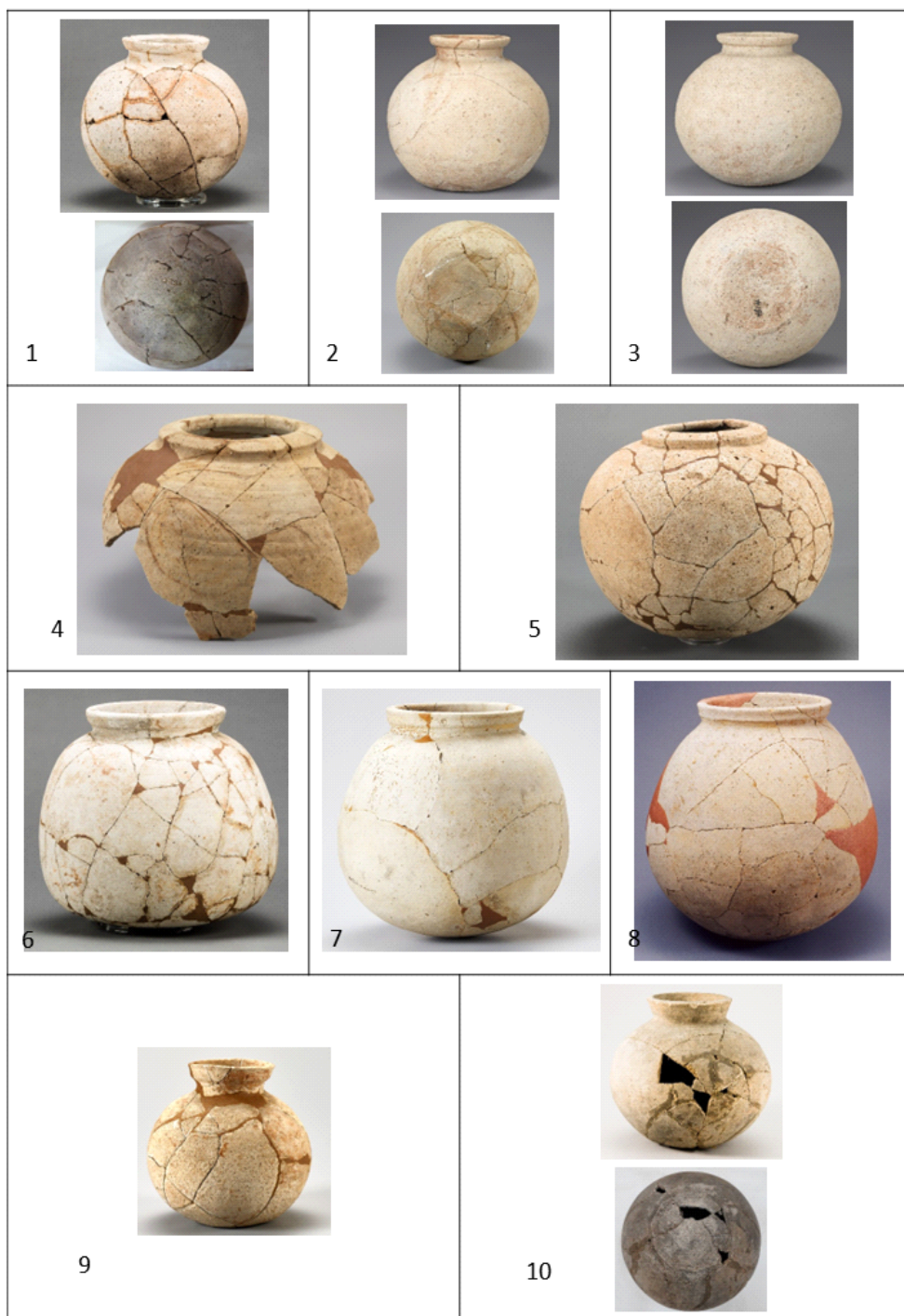
도 26. 평저호 견부 장식 세부(1: 석암리 99호분, 2: 정백리 151호분)

4. 석영혼입계 옹

석영혼입계 옹은 저부 원판 위에 점토띠를 쌓아올린 후 무문내박자와 노끈을 감은 타날구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체 기벽의 두께 변화가 적은 것으로 보아 1차 성형단계에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형태로 제작하며, 이렇게 형태를 완성한 후에는 회전물손질로 구연단을 정리한다. 또한 소형토기의 경우에는 간혹 ‘실로떼기’를 이용하여 녹로에서 토기를 떼어내는 경우도 있다고 보았다(정인성 2016: 108-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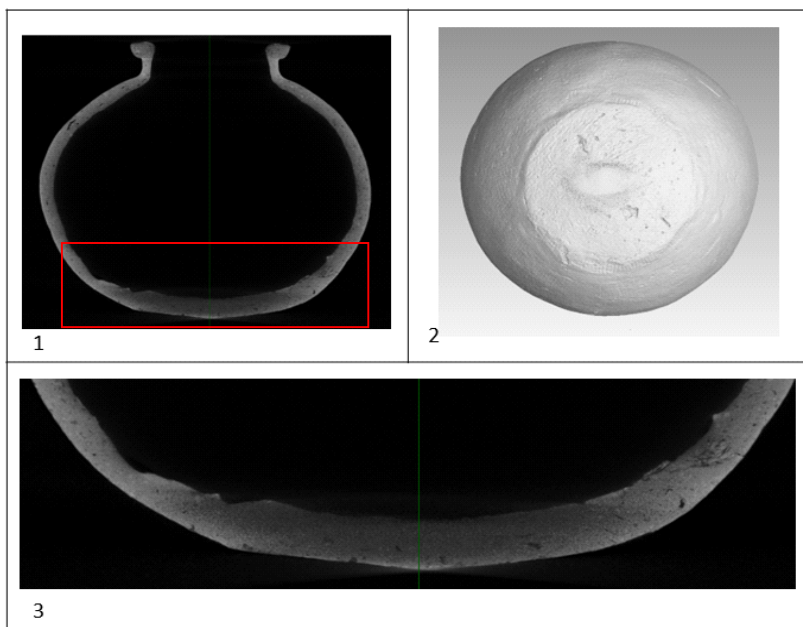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석영혼입계 옹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관찰 결과, 표면에 슬립이 입혀져 제작흔을 확인하기 어려운 일부 대형 옹(도 27-6~8)을 제외하고 거의 동일한 제작기법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형태나 크기와 상관없이 동체부 중상부~구연부까지는 내외면에 모두 회전물손질흔이, 동체부 중하부~저부에는 외면에는 승문타날, 내면에는 무문의 원형 내박자흔이 남아 있었다. 동체부 중하부에 승문타날문이 없는 경우에도 저부 중앙 부분은 예외 없이 승문타날이 되어 있어, 토기 제작의 마지막 단계인 저부 조정에는 공통적으로 승문 타날구가 활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저부와 동체부의 경계에는 저부 타날과는 방향이 다른 노끈무늬 압흔이 남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건조 과정에서 노끈을 감아 만든 토아리 위에 토기를 놓았던 흔적으로 보인다.

석암리 9호분에서 출토된 석영혼입계 옹 I형(도 27-3)을 CT 촬영한 결과, 단면에서 저부와 동체부의 경계면이 확인되어 저부 원판 위로 점토띠를 쌓아 올려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도 28). 또한 저부 기벽이 동체부에 비해 더 두꺼운 것은 완전한 원저가 아닌 말각평저 형태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로 보인다. 이 외에 석암리 9호분에서 출토된 II형 석영혼입계 옹 중에서 저부편이 남아 있는 예가 있는데(도 27-4), 동체부 두께가 약 1.1cm인 것과 달리 저부 바닥면의 두께는 0.7cm로 상대적으로 얇아 승문타날구와 무문내박자를 이용한 저부 원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고가 높은 대형 옹의 경우 쌓아올린 점토띠의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부분별로 제작한 후 접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 2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석영혼입계 용

(1: 석암리 194호분, 2~4: 석암리 9호분, 5: 정백리 13호분, 6: 정백리 8호분, 7: 양동리 5호분, 8·9: 석암리 99호분, 10: 남정리 116호분)



도 28. 석암리 9호분 출토 석영혼입계 웅 CT 사진

IV. 일제강점기 조사 낙랑고분 출토 토기 재검토의 의의 -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과 같이 일제강점기에 조사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중인 낙랑고분 출토 토기를 분류하고 각 기종의 제작기법을 검토하여 기존의 낙랑토성 출토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와 비교·검토하였다.

그 결과 화분형토기와 원저단경호, 석영혼입계 웅에서는 낙랑토성 출토 토기에서 확인된 제작기법이 낙랑고분 출토 토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 본 고에서는 낙랑토성에서 출토 예가 거의 없는 평저호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평저단경호와 평저장경호로 세부 기종을 분류하고, 각각의 편년과 제작기법을 살펴보았다. 평저호는 한반도 중부지역 낙랑(계)토기 중 가장 많이 출토되는 기종의 하나로, 향후 이번 검토 결과를 낙랑(계)토기와의 비교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종별 세부 분류와 편년을 시도하여 낙랑고분 출토 토기에서 확인되는 제작기법의 등장 및 지속 시기를 추정하였는데, 이 결과는 층위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은 낙랑토성과 지

탐리토성 등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의 제작 시기와 유적 사용 시기 등을 판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 각 기종의 등장과 제작기법의 적용 시기를 살펴 본 결과, 대체로 기원전 1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새로운 기종이 등장하고 전형적인 낙랑토기 제작기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소형 원저단경호를 검토한 결과, 1차 성형 과정에서 승문타날을 사용하여 원통형의 기본형을 만드는 낙랑토기 제작기법이 기원전 1세기 후반 경에 등장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평저호와 석영혼입계 웅 역시 기원전 1세기 후반 경 낙랑고분에 부장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낙랑토기 세부 기종의 등장과 기종 구성의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일제강점기 동안 주로 묘광의 규모가 크고 부장품의 수량이 많은 목곽묘(귀틀묘)와 전실묘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중에서 이른 시기의 단장목관(곽)묘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복 이후 북한 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단장목관(곽)묘의 상세한 자료가 공개된다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낙랑토기 형성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본고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낙랑고분 출토 토기를 검토한 결과, 기존 연구의 오류를 수정하고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새로운 기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제작기법의 차이를 토대로 평저단경호와 소형 원저단경호를 구분하여 양자가 구분 없이 동일한 기종으로 취급되었던 기존 분류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대형 원저단경호 Ⅱ형과 같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기종을 확인하였다. 또한 화분형토기 내면에서 확인되는 돌출된 점토흔으로 화분형토기의 제작 과정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번 연구는 낙랑토성 출토 토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기존의 연구가 낙랑토기 전체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지지만, 토성 출토품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은 낙랑토기의 면모를 밝히는 데에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에서도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대동강면에 위치한 낙랑고분 출토품에 대한 더욱 정치한 연구뿐만 아니라 평안남도를 중심으로 하는 낙랑토기와 황해도를 중심으로 하는 대방토기의 비교·연구 역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진전되어 한반도 중부 이남지역 및 일본 열도에서 출토되는 낙랑(계)토기의 제작 시기나 토기의 지역성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다 충실한 문화상 복원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박물관, 2001a, 『樂浪』, 특별전 도록.
_____, 2001b, 『鳳山 養洞里 埽室墓』, 일제강점기자료조사보고 2집.
_____, 2002, 『平壤 貞柏里 8·13號墳』, 일제강점기자료조사보고 3집.
_____, 2018, 『평양 석암리 9호분』, 일제강점기자료조사보고 30집.
- 김기옥, 2012, 「한강 하류역 원삼국시대 외래계 유물」,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외래계 유물과 낙랑』, 제9회 매산기념강좌.
- 김길식, 2001, 「삼한지역 출토 낙랑계 문물」, 『樂浪』,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도록.
_____, 2006, 「진·변한 지역 낙랑 문물의 유입 양상과 그 배경」, 『낙랑문화연구』 20, 동북아 역사재단.
- 金武重, 2004a, 「화성 기안리 제철유적 출토 낙랑계토기에 대하여」, 『百濟研究』 40.
_____, 2004b, 「考古資料를 통해 본 百濟와 樂浪의 교섭」, 『湖西考古學』 11.
_____, 2006, 「마한 지역 낙랑계 유물의 전개 양상」, 『낙랑문화연구』 20, 동북아역사재단.
- 박경신, 2019, 「원삼국시대 중도유형 취락의 편년과 전개」, 숭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20, 「홍천 태학리 유적 원삼국시대 주거지 출토 유물의 특징」, 『홍천 태학리 유적』.
- 박경신·이재현, 2011, 「제2장 유물집성 중국 -초기철기·원삼국시대」, 『한국 출토 외래유물 1 -초기철기~삼국시대』,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사회과학출판사, 2002, 『락랑구역일대 고분발굴보고』, 백산자료원.
- 오영찬, 2001, 「낙랑토기의 제작기법」, 『낙랑』,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도록.
- 이나경, 2013, 「중부지역 출토 낙랑계토기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 2021, 「북한강유역 원삼국시대 서북한계 분묘_토기」, 『북한강유역 원삼국시대 서북한계 분묘』, 제18회 매산기념강좌 발표자료집.
- 이재현, 2005, 「남한출토 낙랑관련 유물의 현황과 성격」, 『낙랑의 고고학』, 제33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요지.
- 장은정, 2018, 「흥노시대 북방문화와 한반도」, 『북방고고학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39.
- 정인성, 2002, 「樂浪文化の考古学的研究」, 東京大学大学院 博士學位論文.
_____, 2003a, 「樂浪土城 출토 土器」, 『동아시아에서의 낙랑』, 제5회 한국고대사학회 하계 세미나.
_____, 2003b, 「樂浪円筒形土器の性格」, 『東京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室研究紀要』 18, 東京.
_____, 2004a, 「樂浪土城의 土器」, 『한국고대사연구』 34.
_____, 2004b, 「樂浪土城의 「滑石混入系」土器와 그 年代」, 『百濟研究』 40.
_____, 2005, 「낙랑토기 및 평기와의 제작기법」, 『낙랑의 고고학』, 제33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회요지.

- _____, 2007, 「낙랑 ‘타날문 단경호’ 연구」, 『강원고고학보』 9.
- _____, 2012a, 「漢江 下流域의 漢式系土器」,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외래계 유물과 낙랑』, 제9회 매산기념강좌 발표자료집,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 _____, 2012b, 「영동 지역의 낙랑(계)토기」, 『강릉 안인리유적 발굴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강릉 안인리유적을 통해 본 강원 영동지역 철기시대 문화 양상-』, 강릉원주대학교박물관 ·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 _____, 2014, 「낙랑군의 토기문화」, 『낙랑고고학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18.
- _____, 2016, 「원사시대 동아시아 교역시스템의 구축과 상호작용-貿易陶器 ‘白色土器’의 생산과 유통을 중심으로」, 『원사시대 사회문화 변동의 본질』, 한국상고사학회 · 한성백제박물관.
- 홍주희, 2012, 「북한강 유역 원삼국시대 외래계 토기」,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외래계 유물과 낙랑』, 제9회 매산기념강좌.
- 황윤희, 2012, 「임진강 유역 원삼국시대 외래계 유물」,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외래계 유물과 낙랑』, 제9회 매산기념강좌.
- 고고학연구소, 1978, 『고고학자료집 V』.
-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59, 『고고학자료집 II』, 과학원출판사.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락랑일대의 무덤(나무관 및 나무곽무덤) - 조선고고학전서 24 중세편 1』.

- 樂浪漢墓刊行會, 1974, 『樂浪漢墓 第一冊 - 大正十三年度發掘調查報告』.
- 朝鮮總督府, 1915, 『朝鮮古蹟圖譜 第一冊 - 樂浪, 帶方郡時代, 高句麗時代(1)』.
- 高久健二, 1995, 『樂浪古墳文化 研究』, 학연문화사.
- 宮本一夫, 2012, 「樂浪土器の成立と拡散: 花盆形土器を中心として」, 『史淵』 149, 九州大学大学院人文科学研究院.
- _____, 2014, 「沖繩出土滑石混入系土器からみた東シナ海の対外交流」.
- _____, 2020, 「遼東・山東系土器と樂浪系土器からみた弥生時代後半期の国際関係」.
- 谷豊信, 1984, 「樂浪土城址出土の土器(上)-樂浪土城研究その2」, 『東京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室研究紀要』 3, 東京.
- _____, 1985, 「樂浪土城址出土の土器(中)-樂浪土城研究その3」, 『東京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室研究紀要』 4, 東京.
- _____, 1986, 「樂浪土城址出土の土器(下)-樂浪土城研究その4」, 『東京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室研究紀要』 2, 東京.
- _____, 2002, 「樂浪土器の系譜」, 『東アジア日本の考古學IV(生業)』, 同成社.

【Abstract】

Re-examination of Pottery Excavated from Nangnang Tombs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 Focusing o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Collection –

Lee Nakyoung*

This article reviews the classification scheme and chronology of pottery excavated from Nangnang tombs that can be found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s collection, and considers whether the manufacturing technological attributes that had been established based on analysis of pottery from Nangnangtoeseong Earthen Fortress are also applicable to the entire assemblage of Nangnang pottery, including examples excavated from the ancient tomb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t was possibl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classification scheme which had been based on differences in production technique, to identify new pottery types that had heretofore been unknown, and to establish that the so-called 'Nangnang pottery manufacturing technique' identified from the pottery from Nangnangtoeseong Earthen Fortress could also be applied to all of Nangnang pottery. By comparing and reviewing the pottery manufacturing technique with the detailed classification scheme, it was also possible to establish the period of emergence and duration of the production techniques identified for Nangnang pottery.

The distorted perception of the Han Commanderies, including Nangnang Commandery, which came to be form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continues to act as a limitation to the research of Nangnang Commandery. The approach adopted in this article, which focuses on artifacts, can be one way of overcoming currently existing biased views. Unlik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when the material culture of Nangnang Commandery was commonly accepted as being equivalent to the material culture of Han China, there has been an explosive increase in the number of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that have taken place in China. As such, it has become possible to reveal the nature of the logistics system that connected the regional cultures in the Han Dynasty, as well as between Han China and its neighboring regions. It is hoped that, by undertaking a review of each excavated artifact (including pottery) from the Nangnang tombs, as well as through a comparative study with the artifacts excavated in China, this article will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finding a new way for the study of the Nangnang Commandery.

Key words : Nangnang tombs, Nangnangtoeseong, pottery, Nangnang Commandery,
National Museum of Korea

* Associate Curator, Chuncheon National Museum of Korea